

# 정운복의 『제국신문』 논설 연구

이대형\*

1. 머리말
2. 정운복의 생애
3. 논설의 특정 주제
  - 3-1. 논설 개관
  - 3-2. 풍속 개량
  - 3-3. 여성 계몽
4. 논설의 문체
5. 맺음말

## 국문요약

정운복은 친일파로 분류되지만 애국계몽기에 그가 행한 역할들을 그저 무시할 수도 없는 인물이다. 그는 한글 전용을 주장하면서 한글의 정착에 기여하였고, 연설과 신문의 논설을 통해 계몽 운동을 개진하였다.

그의 『제국신문』 논설은 신문 논설의 특성상 정치에 관한 것들이 많지만 풍속 개량과 여성계몽에 주목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는 정치 개혁보다 풍속 개량에 힘쓰는 것이 더 근본적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여성과 관련한 여러 주장들을 개진한다. 그의 주장은 서구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다른 우리 문화를 비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담론인데,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서구 추수적인 경향이 짙다.

정운복이 한글 전용을 주장했지만 한글 문장이 정립되기 이전이라서 아직 한문 문투가 많이 남아 있다. 문체 면에서 정운복의 논설은 감성적

---

\* 동국대학교, 조교수.

인 연설문의 성향을 띠는 것들이 많은데 이는 계몽적 태도에 따른 것이며 또한 그가 연설에 능했던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대단히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독자들이 실행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니 이 또한 계몽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주제어 : 애국계몽, 연설, 풍속, 여성, 문체.)

## 1. 머리말

『제국신문(帝國新聞)』은 1898년에 창간되어 1910년 3월에 폐간될 때까지 계몽에 앞장 선 대표적인 신문이다. 한글 위주로 신문을 발행함으로써 하층민과 부녀자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확보하였고,<sup>1)</sup> 법률의 공정한 시행과 풍속 개량을 급선무로 보는 한편 특히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경영난으로 인해 친일 세력이 간여하면서 성격이 변질되다가 폐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2)</sup>

『제국신문』의 초기 논설에 대해서는 계몽의 관념성을 벗어나 실천 가능한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학문’ 개념의 변용을 시도했다는 분석

1) 『황성신문』 1909년 4월 2일자에 ‘帝國報大發展’이라는 제목으로 “近日에는 婦人社會와 勞動團體의 購覽者 多함으로 該新聞이 大發展된다니”라는 표현이 있다. 김양원, 『구한말 제국신문에 나타난 교육사상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7-8쪽 참고.

2) 최기영, 『대한제국기 신문연구』 일조각, 1991, 11쪽 등 참고. 박노자는 「개화기 신문도 ‘촌지를 먹었다」(『한겨레 21』, 2005.4.22)에서 “(제국)신문이 1903년 경영난에 빠지자 고종이 2천원과 사옥을 하사해 구해준 일을 생각해보면 역시 ‘순수 민간지’를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다. 통감부 시절에 고종의 지원이 어렵게 되자 <제국신문>은 1907년 10월 이토 히로부미와의 관계가 돈독한 친일 개화파 정운복(鄭雲復)에게 인수되어 급속히 친일화됐다.”고 언급했다.

이 나온 바 있다.<sup>3)</sup> 1907년 6월부터 시작되는 정운복(鄭雲復)의 논설도 대체로 이러한 선상에 있다고 하겠는데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제국신문』의 ‘서사적 논설’에 관해 그것이 중세소설과 근대소설을 매개하는 양식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sup>4)</sup>

정운복에 대해서는 교육사상과 관련하여 짚막하게 언급한 경우가 있는데,<sup>5)</sup> 그가 근대 교육과 한글 전용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직 밝혀져야 할 사실이 많다고 하였다. 정운복은 대체로 ‘출세지향형 친일파’로 분류되고 있으며<sup>6)</sup> 일제 세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제시기에도 ‘계속하여 항일운동에 투신하였다’<sup>7)</sup>고 평가되기도 하는 등 엇갈린 평가가 존재한다. 정운복이 친일 행적을 보였으나 애국계몽 운동에 앞장섰고 한글 전용을 주장한 것도 사실이다.

정운복이 1907년 6월 8일부터 1909년 2월 21일까지 『제국신문』 주필을 맡으면서 게재한 논설은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이다. 해당 시기는 애국계몽 운동기에서 적극적인 친일파로 변모하기 이전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정운복의 사상적 특징에 대해 파악하고자 할 때 해당 논설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이경현, 「『제국신문』 초기 논설에 나타난 ‘학문’의 성격과 ‘동양’ 사유방식」, 『한중인문학연구』 14, 한중인문학회, 2005.4, 86쪽 등 참고.

4) 설성경·김현양, 「19세기말~20세기초 《帝國新聞》의 〈론설〉 연구」, 『연민학지』 8, 연민학회, 2000, 223~253쪽.

5) 김양원, 「구한말 제국신문에 나타난 교육사상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6) 김기란, 「근대계몽기 매체의 코드화 과정을 통한 여성 인식의 개연화 과정 고찰」, 『여성문학연구』 26, 여성문학회, 2011, 14쪽;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학센터, 『대한자강회월보 편역집1』, 소명출판, 2012, 인명 주석 등에서 그렇게 평가하였다.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정운복’ 항목 참고.

## 2. 정운복의 생애

정운복(鄭雲復, 1870~1920)의 생애는 『조선신사보감(朝鮮紳士寶鑑)』<sup>8)</sup>과 『친일인명사전』<sup>9)</sup>에 대체로 정리되어 있고, 한말 자강운동론 연구서에서 다루어지기도 했다.<sup>10)</sup> 문학 쪽에서는 정운복과 일본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들 정인택(鄭人澤, 1909~1953)이 박태원·이상 등과 어울리며 소설을 다수 썼기 때문에 관련해서 언급되었다.<sup>11)</sup> 이상 기존에 규명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그외 잡지에 소개된 내용과 국사편찬위원회 DB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극재(克齋) 정운복은 연일(延日) 정씨 문정공파 24대손으로서 조부는 정후겸(鄭厚謙)이다. 정후겸은 본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영조의 서녀 화완옹주(和緩翁主)의 양자로 입적되고 나서 병조참판 등을 역임하며 권세를 누렸고, 세손(世孫: 正祖)을 모함했다가 정조가 즉위하자 유배되어 사사되었다. 부친 정기원(鄭幾源)은 정5품 통덕랑(通德郎)을 지냈고, 형인 정운구(鄭雲衢)는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냈다.<sup>12)</sup> 정운복은 1870년 8월 황해도 평산군 하서봉면(下西峰面) 울동(栗洞)에서 출생해서 일본 오사카(大阪) 상업학교를 졸업했다.

1896년(27세) 7월 4일 고베시(神戸市)에 체재 중인 의화궁(義和宮) 이강(李綱)과 박영효의 처소를 내방하고, 5일에 본국 정치에 대해 개혁을

8) 다나카 쇼우코(田中正剛) 편집, 조선문우회(朝鮮文友會), 1913년 제3판(『한국근대사 인명록』, 여강출판사, 1987 영인) 초판은 1912년 조선출판협회에서 발행.

9) 민족문제연구소, 2009.

10)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54~55쪽.

11) 정인택에 대해서는 박경수, 『정인택 문학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1.2 참고. 정운복은 조성녀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일본인 여자와 관계하여 정인택을 낳았다고 한다.(11쪽)

12) 정운복의 가계도에 대해서는 위의 글, 11~17쪽 참고.

하려면 일본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협의했다.<sup>13)</sup> 이듬해 8월 25일에 영국으로 '만유(漫遊)' 가는 영선군(永宣君) 이준용(李俊鎔)을 따라 오사카에서 배타고 출발했고, 1899년 11월 5일 도쿄와 오사카를 거쳐 13일에 귀국했다.<sup>14)</sup> 이러한 행적 때문에 1901년 이준용의 무리로 지목되어 전남 지도군(智島郡) 흑산도에 유배되었고, 1904년에 사면되어 서울로 돌아왔다.<sup>15)</sup> 그런데 정운복이 영국에 있을 시기인 1898년 무렵 『독립협회 연혁략』에 총무부 과장 및 부장급으로 '윤이병, 안창호' 등과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독립협회 일을 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6)</sup>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미상인데 안창호와와는 후에 같이 연설하러 다니게 된다.

기독교에 입교하여 한때 경신학교(敬新學校) 학감을 맡기도 했으나 1년여 만에 뜻이 맞지 않아 뛰쳐나왔다고 하는데,<sup>17)</sup> 1905년(36세) 1월 6일 윤치호(尹致昊)·남궁억(南宮穉) 등과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치안의 방책은 교화가 법률보다 낫다(治安之方은 教化가 勝於法律)」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여한 것은(『대한매일신보』 1906.1.6) 이러한 인연 때문인 듯하다.

1906년(37세) 일어신문 경성일보(京城日報) 언문란(諺文欄)의 주필이 되었고, 4월 14일에 대한자강회 임시회에서 간사원으로 선출한 10명 가운데 참여하였는데<sup>18)</sup> 이때부터 사회활동이 본격화된다. 이해 5월 19일 대한자강회 평의원으로서 선출되었고, 6월 19일 대한자강회 교육부위원으

13) 이에 대해서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0권에서 볼 수 있다.

14) 『한국근대사자료집성』 02권. 한국인 동정에 대해 오사카지사(大阪府知事)가 외무대신에게 보낸 문서.

15) 신용하, 앞의 책, 132쪽 참고.

16) 신용하, 『신판 독립협회 연구(상)』, 일조각, 2006, 2쪽 참고.

17) 박찬승, 위의 글, 54쪽.

18) 대한자강회는 1906년 4월 4일부터 1907년 8월 21일까지 17개월간 존속하였다. 유영열, 「대한자강회 애국계몽운동」 52쪽 참조(조항래 편,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3)

로 선출된 5명에 참여하였다.(『대한자강회월보』 2호) 대한자강회에서 장지연, 윤희정 등 월보편집협찬위원 10명과 월보검열위원 3명(윤희정, 장지연, 정운복) 가운데 참여하여, 『대한자강회월보』 1호(7월 31일)에 ‘教育의 必要’에 대해 연설한 글이 게재되었고, 『대한자강회월보』 2호(8월 25일)에 『官尊民卑의 弊害』가 게재되었으며, 『家庭教育』이란 글은 1호와 2호에 이어 게재되었다. 10월 26일에는 이갑(李甲) 등과 서우학회(西友學會)를 조직하여 회장을 맡았다.

동경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의 모임인 태극학회의 기관지 태극학보(太極學報) 10호(1907년 5월 24일)에는 안창호와 정운복을 환영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정운복은 ‘학업 방침과 품행’에 대해 연설하고 안창호는 ‘현 상황과 실업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연설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6월에는 『제국신문』 주필을 맡으며 2대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6월 15일 장충단에서 열린 진명부인회 개회식에서 축하 연설을 하였다.(『제국신문』 1907.6.18.) 11월 10일 오세창, 윤희정, 장지연 등과 함께 대한협회(大韓協會)를 발기하여, 17일에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대한협회회보』 1호, 『황성신문』 1907.11.19)

1908년(39세) 1월 3일 서우학회와 한북학회(漢北學會)를 통합한 서북학회(西北學會)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고(『황성신문』 1908.1.5.) 1월 11일 서북학회 개회식을 거행할 때 회장으로 취임을 설명하였다(『황성신문』 1908.1.11.) 1월 23일 경성 고아원 제2회 기념식에 내빈으로 참여하여 고아원 유지 방법에 대해 연설하였다.(『황성신문』 1908.1.24) 2월 8일 관인구락부에서 대한협회의 총회를 열어 정운복은 『지방 정형의 문제』로, 안창호는 『우리 한국의 앞길은 어떠한가我韓 前途의 如何』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는데, 방청객이 1천여 명이었고 연설에 대한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가 많았다고 한다.(『황성신문』 1908.2.11) 2월 19일

값싼 일본 면제품에 맞서기 위해 조선 포목상들이 설립한 회사 창신사(彰信社)의 낙성식을 거행할 때 취지를 연설하였다.(『황성신문』 1908.2.20.) 같은 날에 교남교육회(嶠南教育會)가 전동(磚洞) 보성중학교에서 특별 총회를 열고 안창호와 정운복을 초청하여 연설하게 하였다.(『황성신문』 1908.4.16.) 5월 7일 협성학교(協成學校) 제1회 졸업식에서 연설하였다.(『황성신문』 1908.5.9) 9월에 동척법(東拓法)에 대하여 대정부질의대표로 선출되어 질의하였고(『대한협회회보』 6호) 9월 26일에 『국문발달과 제국신문』이란 문제로 황성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연설하였다(『황성신문』 1908.9.5) 이 해에 신문지법 위법으로 검거되었다.(조선총독부기록물 내부 경무국 제2과 신문계).

1909년(40세) 2월 16일 100여 명이 대한협회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정운복이 연설하였는데 정부대신 가운데 역적 3명 비난을 비난하였다. 22일에는 나인영(羅寅永) 외 45명을 자택에 초청하여, “우리 한국은 일본의 보호에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독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백인종에게 한국 전 국토를 점령당하는 것은 필연이다.”라고 하여 선후책을 협의했다.(『통감부문서(統監府文書)』 6권) 9월 6일 대한협회 임시 회의에 참석하여 일진회와 연합할지 논의하였다.<sup>19)</sup> 9월 23일 이완용에 대항하여 대한협회와 서북학회·일진회가 제휴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이완용이 정운복을 매수하려다가 실패하였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1909년 8월~9월) 10월 10일에 교육계 대가들에 대한 투표에서 2점 받았다.<sup>20)</sup> (『황성신문』 1909.10.10.) 12월 5일에 서대문 내 원각사에서 열린 국민대연설회에서 매도당한 것에 분개하여, 6일에 대한협회를 탈퇴하고,

19) 이 연합론의 추이와 성격에 대해서는 이현중, 『대한협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성격』,

177~191쪽 참고(조항래 편,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3)

20) 당시 민영휘(閔泳徽)가 20점으로 최고였고, 안창호는 4점을 받았다.

제국신문사 사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통감부문서』 8권). 매도당한 직접적인 이유는 적혀있지 않은데 아마도 일진회와 연합하려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 시기부터 그의 친일 행각이 두드러진다.

1913년(44세) 무렵 『매일신보』 주필을 맡았고,<sup>21)</sup> 1918년(49세) 2월에 조선총독부 경무국 촉탁이 되었다. 1919년(50세) 11월 11일 『독립신문』 4면 「자신이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없다自作孽은 不可道」에 “高等偵探軍 鄭雲復은 多年 佞鬼노릇 하되...”라고 비난하는 글이 실렸다. 일진회에서 활동하다 독립운동에 헌신한 전협(全協)과 대동단(大同團)의 최익환(崔益煥) 등이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堉)을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탈출시키려고 했을 때 이용된 인물로 기사에 나온다. 이강은 만주 안동(安東, 현재 丹東)에 도착하였다가 결국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신보(晨報)』 1919.12.9,<sup>22)</sup> 『독립신문』 1919.12.25 2면 「義親王出京詳報」) 1920년(51세) 5월 27일 『독립신문』 1면 「宣告를 받은 倭犬 아직 執行猶預」에 “京城敵犬으로 有名한 鄭雲復, 尹秉熙 等”이라는 표현이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20년 12월 6일 숙환으로 여러 달 고생하다가 운명하였다고 하며 “실로 이 세상에 풍운아라고 하지 않을 수 업는” 이라고 평가되었다.(『매일신보』1920.12.7) 이후 서북학회 시절에 한일 병합 성사를 위해 상소를 올린 공을 인정받아 일본 우익단체 흑룡회(黑龍會)가 1934년 건립한 일한합방기념탑에 이름이 새겨졌다.

아울러 그는 실용적인 저서를 몇 권 발행하였다. 한국인으로서 회화

21) 정운복의 아들이자 소설가인 정인택도 아버지의 친구 권유로 매일신보사에 들어간다. 조용만, 『李箱時代, 젊은 예술가들의 肖像』, 『문학사상』 174호, 문학사상사, 1987, 108쪽 참고.

22) 『신보』는 중국 장개석(蔣介石)의 직계 기관지인데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에 실려 있다.



형식으로 만든 최초의 일본어 교과서 『독습 일어정칙(獨習 日語正則)』(1907년, 광학서포)은 자주독립을 고취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제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는데,<sup>23)</sup> 한글문장의 형성과 관련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sup>24)</sup> 1908년에는 일한서방(日韓書房)에서 『최신 세계지리』와 『신 산술(新 算述)』도 간행하여 근대 지식의 보급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상 살펴본 정운복의 생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1906년(37세)에 대한자강회 임시회에서 간사원으로 선출되면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1907년과 이듬해에 곳곳에서 연설을 하였고 안창호와 같이 활동한 기록들이 보인다. 1909년부터는 친일 행위를 노골화한 탓인지 국민대연설회에서 비난당하였고 1918년에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촉탁을 받는 등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하였다. 그러므로 정운복의 생애는 1908년까지의 애국계몽운동과 이후의 친일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에 다룰 그의 논설은 애국계몽운동 시기에 해당하는데, 연설 활동을 한 것과 관련되는 면모가 보인다.

23) 한원미, 「『獨習 日語正則』의 한일 대역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3.8, 13쪽 등 참고.

24) 이와 관련한 논문으로 송민, 「개화기의 신생한자어 연구」, 『어문학논총』 20,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1, 33~77쪽; 유성민, 「『獨習 日語正則』을 통해 본 和製漢語의 수용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등이 있다.

### 3. 논설의 특정 주제

#### 3-1. 논설 개관

『제국신문』이 흥성할 때는 4천 부에 가까웠는데 1907년 9월 폐간을 언급할 즈음에는 2천 부로 줄어들었다.<sup>25)</sup> 정운복이 『제국신문』의 주필을 맡은 1907년 6월은 이미 사세가 기운 시기에 해당하는데 그는 열정적으로 논설을 집필한다. 주필을 맡은 해에 정운복은 필명인 ‘탄해생’으로 논설을 활발하게 게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08년이 되어서는 ‘탄해생’의 논설이 줄어들고 기사와 별보의 비중이 높아진다. 1907년에 ‘탄해생’이라고 밝힌 논설이 82번 나오는데 1908년에는 1년 다 합하여 78번의 논설이 있을 뿐이다. 1908년에는 ‘정운복’ 이름으로 1번의 논설과 7번의 별보가 게재되었는데 이것을 다 합해도 1907년 하반기에 실린 논설 정도의 분량일 뿐이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1편의 논설만이 있을 뿐인데 제목이 ‘병중소감(病中所感)’이다. 그 내용을 보면 10월 4일부터 70여 일을 몸져누워 있었다고 한다. 이런 개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해에 비해 ‘탄해생’을 표방한 논설이 줄어든 것이 분명하다. 1908년에는 논설이나 논설을 대신하는 기사·별보도 없는 경우가 전반기에 6번, 후반기에 3번이나 된다. 1907년 하반기에는 12월 17일 한 차례 뿐이었다. 1908년에는 논설이 검열 때문에 삭제된 경우도 10월 30일과 11월 20일, 11월 27일 3차례나 된다. 그렇다면 1908년에는 검열이 강화되는 등 시국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논설을 아예 실지 않거나 기사나 별보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08년에 활발하게 연설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논설을 집필할 여유가 없기도 했을 것이다.

25) 논설 『붓을 들고 통곡함』, 『제국신문』, 1907. 9. 10 참고.

1907년 6월부터 시작되는 정운복의 『제국신문』 논설은 다른 신문 논설과 마찬가지로 시국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거나 정치적 방향을 논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와는 다른 주제들도 적지 않다. 그의 논설을 날짜별로 계산해 보면 총 179건이 되는데<sup>26)</sup> 그 가운데 풍속 관련 45건, 정치 관련 45건, 계몽적 발언 24건, 교육 관련 20건, 신문 관련 19건, 단체 관련 10건, 여성 관련 7건, 기타 9건이다.<sup>27)</sup> 여기서 ‘계몽적 발언’이란 「국민의 즈신력이 업슴을 한탄함」(1907년 12월 27일)처럼 대중의 상태를 한탄하거나 계도하는 부류의 글을 말한다. 특이한 것은 1907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실린 계몽적 발언이 20건인데 비하여 1908년과 1909년 2월까지 실린 계몽적 발언은 4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신문’에 관한 논설의 경우와 유사하다. 1907년의 경우 신문에 관한 논설은 15건이 실렸는데 이후는 5건에 불과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에 관한 논설도 1907년에는 5건으로 이후의 2건에 비하여 많다. 그밖에 다른 경우들은 1907년보다 시기가 늘어나는 이후 시기가 당연히 더 많은 횟수를 보인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179건은 기사와 별보 그리고 ‘사설’을 포함한 숫자다. 현재 연세대에 소장되어 있는 상태로는 이 가운데 2건이 유실되어 있다. 1907년 12월 4일자와 1908년 1월 11일자가 해당된다. 앞의 것은 다음 날에 「의병의게 권고함 二」가 실린 것으로 보아 「의병의게 권고함 一」인 것이 분명하고, 뒤의 것은 전날(기사) 「정부명령이 밋업지 안음을 한탄함」이 “(미완)”으로 끝났으니 후속 편이 실렸을 것으로 보인다. 179건에는 ‘사설’이 2건, 별보가 10건, 기사가 2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논설과 다르나 논설을 대신 하는 글이므로 같이 다룬다.

27) 위 분류는 대체적인 경향을 표시한 것으로, 딱히 하나로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논설의 주제를 일별하기 위해 단순화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논설의 제목과 분류를 제시한 부록 참고.

	계몽	신문	여성	정치	풍속	교육	단체	기타
1907년	20	14	5	18	22	3	5	0
1908년~	4	5	2	27	23	16	5	9

시대를 한탄하거나, 장사하는 사람은 공손해야 한다는 등 지도자의 위치에서 대중을 계몽하려는 식의 논설들이 1907년에 많았다는 점은 정운복이 처음 『제국신문』을 맡으면서 가졌던 계몽가로서의 열정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사회와 신문』(1907년 12월 26일) 등 신문 자체와 관련한 논설 역시 1907년에 많았다는 점도 신문 주필을 맡으면서 가졌던 열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논설에서 정치에 관한 언급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데 특기할 만한 점은 외교에 관한 글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신협약에 대한 의견』(1907년 7월 27일)과 『한인이 일본을 의심하는 원인』(1907년 11월 30일)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한매일신보』의 경우 1907년 8월에 한일협약(4, 6일), 미국 독립한 날(7, 8일), 한국과 미국의 관계(10일), 일본과 미국의 관계(15, 16, 17일), 일본과 한국(23일) 등 외교에 관한 논설을 많이 실고 있는데, 해당 날짜에 『제국신문』에 실린 논설은 주로 풍속과 관련된 주제들이다. 이는 일본의 정치 간섭을 당연시하며 일본의 지도를 받아 성장해야 한다는 그의 정치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협약에 대한 의견』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지금 일본과 우리 나라 사이에는 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업도다 엇지하야 그러 노흐면 우리는 심히 가난호고 약홀 썩안이라 일반국민의 지식이 발달치 못하야 우흐로 정부의 원강 정무와 아리코 민간의 범벅스업을 모다 외국사름의 가라침과 인도홀을 받게 되엿스즉 설령 도약이 업슬지라도 일본이 우리를 가라치고 인도홀 다는 아릅○온 일흠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임의로 횡홀지니”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이루어진 한일 간의 불평등 협약에 대해, 정운복은 몇몇 부분에 대해 비판을 토로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일본의 간섭을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인식은 그의 논설에서 풍속 개량을 강조하는 발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된다. 정치 개혁을 일으키기에는 국내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풍속 개량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 3-2. 풍속 개량

1907년 8월 17일 논설 『봉독(奉讀) 성조(聖詔)』는 혼인의 연령에 관한 글이다. 조혼을 금하는 조칙을 인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했는데, 인용된 조칙은 다음과 같다.

“인성이 삼십에 안히를 두며 이십에 식집감은 벗적 삼디의 성훈 법이거늘 근력 에 일즉 혼인하는 폐가 국민의 병원(病源)이 막심흔 고로 년전에 금령을 반포호 였스되 지금까지 실시치 못호였스니 엇지 유스(有司)의 허물이 안이리오 이제 유 신(維新)호는 썩을 당호야 풍속을 기량(改良)홈이 가장 급히 힘쓸 바이라 부득불 벗법과 지금 풍속을 참작(參酌)호야 남즈의 나히 만 십칠세(滿十七歲)와 녀즈의 나히 만 십오세(滿十五歲) 이상으로 비로소 가취(嫁娶)호되 각별히 준형호야 어 김이 업게호라”

정운복의 논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풍속 개량은 위와 같이 대한제국 황제의 의지와 관련 있으며 이는 ‘제국신문이라고 내건 기치와도 부합한다. 이러한 풍속 개량론은 그가 함께 연설을 하러 다녔던 안창호의 경우 기독교와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인격 혁명을 통한 민족 역량의 함양을 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서<sup>28)</sup> 그의 특징적 면모에 해당한다.

1907년 10월 9일 ‘탄허싱’ 이름으로 게재된 논설의 제목은 「정치 기량 보담 풍속 기량이 급함」이다. 정치 개량은 근본을 버리고 끝을 취하는 격 이라고 하며, 풍속 개량이 근본이라고 주장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인민의 풍속이 좋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빅 가지 아름다운 법도와 천 가지 도훈 규측을 마련했습시다도 그 인민의 풍속이 괴악하야 실상으로 행하지 안이하면 필경은 지상공문이 될뿐이라”

풍속을 개량하는 방법은 정부대관과 지식인이 먼저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0월 9일에 이어 10일부터는 본격적인 풍속 개량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0.10	풍속개량론 1) 녀자의 기가를 허할 일
10.11	2) 뇌외하는 폐습을 곳칠 일
10.12	3) 압제혼인의 폐풍을 곳칠 일
10.13	4) 압제혼인의 폐풍을 곳칠 일(전호 속)
10.15	5) 택일하는 폐풍을 버릴 일
10.16	6) 위생에 주의할 일
10.18	7) 상업계의 폐풍을 고칠 일
10.19	8) 온돌을 폐지할 일
10.20	9) 음식 먹는 습관을 고칠 일

위 8가지 풍속개량론 가운데 결혼과 관련된 항목이 3가지나 차지하여 비중이 높다. 특히 ‘압제 혼인’에 대해서는 이틀에 걸쳐 게재하고 있는데

28) 안창호에 대해서는 이윤희, 「도산 안창호의 독립운동사상에 관한 고찰」, 『한국사상사학』 18, 한국사상사학회, 2002, 539쪽; 심옥주, 「도산 안창호의 정치활동의 성격과 의미: 공립협회와 신민회 활동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민족사상』 6(1), 한국민족사상학회, 2012.4, 141쪽 참고.

‘압제 혼인’이란 부모가 강제로 일찍 결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실상 조혼의 다른 측면을 표현한 것인데, 이에 대해 “나라를 멸망하는 근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풍속 개량의 이유는 그것이 개화된 나라의 풍속에 비해 불합리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고 풍속 개량이 곧 부국강병의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운복의 논설에서 보이는 표현으로 보면 “외국 사람의 보는 바에 붓그러운 일”(1907년 10월 15일)기 때문이라<sup>29)</sup> 했다. 풍속 개량의 내용 가운데 음식 먹는 습관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아침밥보다 저녁밥을 낮게 먹으므로 아침밥을 중시여기는 우리 풍속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반석죽’으로 표현되는 전래의 식습관은 요즘 시각으로 보면 권장할 만한 것인데, 이러한 풍속이 ‘한가한’ 데서 나온 것이니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으므로 간단하게 줄이고 저녁을 풍성하게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서양의 식사 풍속이다. 서양은 아침보다 저녁을 풍성하게 먹는다는 것이다. 식사를 하는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을 문제 삼고서는 ‘조반석죽과 다른 서양의 풍성한 ‘만찬(晩餐)’처럼 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처음 지적했던 ‘시간’이 문제라면 서양의 만찬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떠한지 비교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서양처럼 저녁을 풍성하게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대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서양의 풍속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식에서 나온 담론이다.

식구들이 순서대로 따로 밥을 먹는 풍속에 대해서도 비난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식당에서 같이 화락하게 식사하는 풍속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

29) 여기서 ‘외국’이란 ‘구미’와 ‘일본’을 가리킨다. 구미와 일본을 같이 언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더 구미 각국이나 일본 사람들도 넷적에는 사람의 소견이 어둡고” 1907년 10월 15일 논설.

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식사를 같이 하므로 화기가 도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집은 일년 삼백륙십 일에 너외 쓰흠이나 고부 싸흠 안이 흐는 날이 업셔서 집마다 불평흔 괴운썸인즉 엇지 전국 동포가 화합흐기를 바라리오.”라고 했다. 이것 역시 문명국인 서양의 풍속을 추수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담론으로서, 실상을 근거로 하여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3. 여성 계몽<sup>30)</sup>

일반적으로 애국계몽기 지식인들이 여성의 계몽에 주목을 한 것처럼 정운복의 논설에서도 여성 계몽에 관한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1907년 6월 18일 『진명부인회를 하례흠』에서는 군두목으로 편지 쓰고 『삼국지』나 『소대성전』 같은 고소설을 보는 풍속을 비난하여 ‘지식’이 없으면 ‘가사와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서양처럼 남녀 구분 없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 풍속에 관한 비판은 1907년 11월 26일 『귀부인사회에 경고흠』에 본격적으로 제시된다. 부인이 마땅히 해야 할 침선과 음식 마련을 침모·반비·차집 등이 대신 거행하게 하고, 나들이 할 때는 사인교(四人轎)나 장독교(帳獨轎)에 종을 두셋 거느리고, 하는 일이란 놀이 가는 일, 약물터에 물 맞으러 가는 일, 친정에 나들이 가는 일, 담배 먹는 일, 세

30) 근대계몽기의 여성 계몽에 대해서는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었고, 『제국신문』이 특히 여성 계몽에 주목한 것에 대해서는 김종옥, 『한말 여성계몽운동에 대한 일연구』 『제국신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 4쪽 등이 참고된다. 『제국신문』에 여성독자의 투고가 많은 것도 논의와 관련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 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참고.



책(貫冊) 보는 일뿐이라 하였다. 여기서 언급되는 ‘세책’이란 주로 소설책이 해당될 텐데, 소설책에서는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우리나라의 국문으로 지은 소설책이라 하는 것이 부녀즈의 마음을 슴슴게도 하고 혹 위로도 하나 그러나 만에 한 가지도 유익한 말이 업슨즉”

소설책을 언급한 이유는 소설책 보지 말고 신문을 보라고 권유하고자 함이다. 소설과 신문은 분야가 다른 것인데 정운복은 ‘유익한 말’ 즉 지식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신문을 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귀부인은 교군(驕軍)을 타고, 그 다음은 장옷이나 치마를 쓰거나, 양복이나 일복을 입고 외출하며, 인력거는 기생이나 삼패 외에는 타는 사람이 없는 풍속을 문제 삼고서 의복 개량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는데, 1907년 6월 19일 『부인의 의복을 기량 할 일』에서는 부인 의복을 어떻게 개량할지 상세하게 제안하였다.

“적오리나 적삼은 읍뒤 션을 조금 길게 하여 슈구와 도련에는 션을 두르거나 양복 모양으로 무엇을 아로 삭여 달고 치마는 도랑치마로 하되 외오 님고 바로 님는 폐단이 업시 통치마로 민드려서 거름 거름 적에 치마자락이 버러지지 안케 하고 신은 비단으로 짓는 풍속을 버리고 가죽으로 지오되 양혜의 반혜(半鞋) 모양으로도 지어 발이 편하며 질기게 하고 머리는 이마를 지우고 밀과 기름으로 붓쳐서 쪽지는 풍속을 폐하고 서양부인의 머리를 본밧아 우호로 치고어 올니고 모즈랄 써야할 터이니”

위 예문을 보면, 저고리와 적삼, 치마, 신발, 머리 모양이 당시 어떠한 음을 말하면서 각각에 대해 상세하게 규범을 제안하고 있다. 규범의 방향은 ‘양복 모양으로 무엇을 아로 삭여 달고’와 ‘양혜의 반혜(半鞋) 모양으로도 지어’, ‘서양 부인의 머리를 본밧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의 모

습이다.

정운복이 보기에 의복에서 긴요한 것은 모양과 위생과 비용 세 가지이니 기존 복장에서 조금만 변형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의복에 대해서는 1908년 6월 5일 『녀주의 의복과 단장을 급히 기량할 일』에서 다시 한번 거론한다.

“녀주의 의복으로 말하진던 오늘날 변천하는 시대를 당하여 혹은 양복을 닮으며 혹은 통치마에 긴 적삼을 닮았고 양해를 신었으며 혹은 우리나라의 전하는 오는 의복을 닮아 그 규모가 혼결갓지 못할 뿐 아니라 닳토어 변화하고 사치한 것을 숭상하여 초록, 연두, 람, 분홍, 당홍 등의 각색 빛이 사람의 눈을 열고 청국, 일본, 서양 각국의 원자 주단 등속을 갑의 다소는 불계하고 괴어히 남보담 이상하고 낮게 하라 하니 이는 곧 국가를 망하며 사회를 어즈럽게 함이로다”

여기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복의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사치함을 비판하는데 사치를 비판하는 건 타당하나 그것이 다양성과 개성의 부정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변천하는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시공간의 옷차림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된 것인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 하겠다.

이 당시에 위생에 대한 논의는 인구 증가가 곧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인식 아래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운복은 여성의 해산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07년 6월 26일 『히산 구원을 칭수에 맞기지 못할 일』이 그것인데, 이는 당시의 해산 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무 것도 몰오는 이웃집 로파나 일가친척의 늙은 부인으로 하야곰 아희를 받게 하니 다형히 순산이나 하면 핑계치 안으되 난산이나 도산을 혼다던지 후산을 못하면 엇지 홀 줄을 몰오고 약으로 들하면 불수산이나 쓰고 그러치 안이하면 삼

신의 탈이라 하여 메역국 환법으로 괴도나 홀 짜름이니 무슨 효험이 잇스리오. 그뿐 아니라 산모와 아히의 몸을 도모지 씻지 안이하고 더운 방바닥에 거적을 퍼서 드러온 것을 밧으며 여름이나 겨울이나 문을 겹겹으로 봉하여 씻끗한 공기는 조금도 통치 못하게 하고 산모의 머리는 슈건으로 싸미여 밧갓 괴운을 밧지 못하게 하고 톡는 삼일 동안을 방안에 둔즉”

해산 후에 산모와 아이를 씻기지 않는다는 점, 방문을 닫고 산모 머리를 슈건으로 감싸서 외기를 소통시키지 않는다는 점, 태를 삼일 동안 방안에 둔다는 점 등이 비난의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정운복이 기대고 있는 당시 서양의학을 기준으로 할 때 이러한 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겠으나, 달리 보면 산후풍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sup>31)</sup> 그의 논설들은 전래적 방식을 전면 부정하면서 합리적이기보다 서양문화를 추수하는 담론인 경우가 많다.

#### 4. 논설의 문체

『제국신문』은 국문을 전용함으로써 부녀자와 하층민들을 독자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 그러나 한글을 전용한다고는 했지만 실상 완전한 한글 전용은 하지 못했다. 기사마다 제목을 붙일 때 한문으로 된 제목들이 많이 보이니, 예를 들면 1907년 9월 10일 2면 잡보 『楊州大掃蕩記』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은 논설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문의 주필을 맡은 정운복은 신식 교육을 받은 이로서, ‘배우기 어려운’ 한문을 배격하고 배우기 쉬운 한글을 기반으로 서구적 지식으로 계

31) 『국민일보』, 2008년 7월 21일자에는 산모 머리는 출산 3일후부터 샤워는 1주일 후부터 하는 게 좋다고 하였다.

몽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2)</sup> 그러나 아직 한글 문법이 자리를 잡기 이전이라 여전히 한문 문투가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글의 구성상에 있어서 문답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그렇다. 1907년 10월 5일 『신문기자』에서 “엇더흔 깃이 와서 한헌의 레를 필흔 후 깃이 본 기자에게 질문하야 같아디”라고 하여 문답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것은 한문의 전통적 양식이다.<sup>33)</sup>

어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1907년 9월 10일 논설 『붓을 들고 통곡흙』은 ‘탄해생’이라는 필명이 아니라 ‘정운복’이라는 본명으로 쓴 몇 편의 글<sup>34)</sup> 가운데 하나인데, “어국어민에 유조흙이 잇다 흐시면”이라고 하였다. 이는 ‘於國於民에 有助’라는 한자말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서 한문 문장을 한글 식으로 문장 성분의 위치를 바꾼 것이다. ‘於’라는 전치사가 한글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문장은 한문의 영향이 짙게 남아 있다고 하겠다. 1908년 5월 27일 논설에서 “어쯔어피에 한심 통곡흙 바이로다”의 구절 또한 마찬가지다.

32) 1908년 6월 8일 사설 『첫인사』에서부터 그런 입장을 표출하였고, 1907년 9월 17일 『국문을 경흐게 녀이는 식들에 국세가 부퓌흔 리유』, 1907년 9월 18일 『국문을 경흐게 녀이는 식들에 국세가 부퓌흔 리유(전호숙)』, 1907년 10월 26일 『림피군으로 모범을 삼을 일』, 1907년 11월 20일 『리천 군수 리철영(利川郡守李喆榮)씨의게 경고흙』, 1907년 11월 21일 『리천 군수 리철영씨의게 두 번 경고흙』, 1908년 6월 7일 『국문과 한문의 경중』, 1908년 6월 9일 『국문과 한문의 경중(숙)』, 1908년 6월 10일 『국문과 한문의 경중(숙)』, 1908년 7월 3일 『교육월보(教育月報)를 하레흙』, 1908년 7월 14일 『한문을 숭상흙은 의뢰심을 양성흙과 갖흙』, 1908년 11월 5일 『국문신문을 비척하고 신문을 구람치 안이흐는 동포의게』 등도 그러하다.

33) 이에 대해서는 김현양의 앞의 글에서 지적한 바 있다.

34) 이외에 1908년 3월 10일부터 7차례 연재된 ‘평양유기(平壤遊記)’와 1909년 2월 21일 별보 『대한협회연설 여론의 가치(輿論의 價値)』에 ‘정운복’이라 밝혔다. 이 글들은 해당 신문의 논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이름을 밝힌 것이라 생각된다. 『붓을 들고 통곡흙』과 1908년 4월 23일 『서북학회의 학교 건축하는 일』은 ‘논설’이라는 항목으로 게재되어 있는데 ‘탄해생’이 아니라 ‘정운복’이라 한 것은 정운복 개인의 견해를 표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심 통곡’이라는 말처럼 관련 있는 두 단어를 연이어 사용함으로써 4음절을 맞추는 것도 한문 문투에 해당한다. ‘천견박식’·‘평균분배’·‘허황뿔랑’(1908년 2월 18일), ‘성경현전(聖經賢傳)’·‘와석종신(臥席終身)’·‘우부우부(愚夫愚婦)’(1908년 5월 14일) 등 이러한 사례는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문과는 문장 구조가 다른 한글 문장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sup>35)</sup>

한문투는 이전에 사용되던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만 일본식 표현의 경우 정운복은 그 부당함을 지적한다. 이 시대 문명화의 핵심적 과제로 떠오른 번역과 관련한<sup>36)</sup> 『번역의 어려움』이라는 1908년 4월 17일 논설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표현된다.

“본년 일월 이십일일에 칙령으로 반포한 삼림법(森林法) 데스도에 글아디 『部分林의 樹木은 國과 造林者의 共有로 하고 其持分은 收益分收部分에 均게 흠』이라 ㅎ얏스며 데오도 데륙항에 글아디 『魚附에 必要한 箇所』라 ㅎ얏스니 이 글을 보고 그 뜻을 엇지 알니오 위선 지분(持分)이라 ㅎ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도 알 슈 업고 한문 뜻으로 풀 슈 업거날 당당한 법문에 그디로 기록하야 학문의 명도가 어리고 나즌 우리 동포다려 알나 ㅎ니 이는 참 한심한 일이로다 기중에 심한 자는 어부에 필요한 기소(魚附에 必要한 箇所)라 ㅎ는 말이니 대테 어부는 무엇이며 기소는 무엇이뇨 이는 칙령을 가라치고져 흠이 안이라 아모쵸록 몰으도록 흠이라 ㅎ야도 가ㅎ도다 시험하야 이 글을 번역하던 번역관과 이 법문을 너각회의에 올녀 토론하고 의결하던 대신네들도 아지 못하리니 아지 못하는 것을 엇지 번역하엿스며 엇지 의결하얏는지 춤 구설부득의 일이로다 또 작일에 엇더한 신문을 본즉 외국에서 온 턴보 가온디 이호 활조로 대서특서하되 너각역할변경(內閣 役割變更)이라 ㅎ얏스니 역할(役割)이란 말이 무엇이뇨 신문은 일반공중의 이목이어늘 이갓치 아지 못할 말을 기지흠은 진실로 한탄할 바이라 ㅎ노라”

35) 20세기 초 이러한 국문과 한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기형, 『근대어의 형성과 매체의 언어전략』, 『문예공론장의 형성과 동아시아』, 성균관대출판부, 2008, 62쪽 등 참고.

36) 이 시대 번역 인식에 대해서는 정선태, 『근대계몽기의 번역론과 번역의 사상』,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참고.

일본어 열풍이 몰아치는 시기에<sup>37)</sup> 일본 말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자국어로 일반화되기 이전에 법문이나 신문 기사라는 공식적인 글쓰기에까지 생소한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본에서 공부하였고 일본 지향적 인물이지만 한글을 중시했던 애국계몽 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운복의 논설에는 연설문을 그대로 전재한 것들도 보이는데 이는 계몽적 글쓰기의 일환이요, 입말을 잘 표현해 내는 한글의 효용성을 살린 글이라 할 것이다. 1907년 6월 18일 『진명부인회를 하례함』 등이 그러하다. 연설문이 아니더라도 정운복의 논설 중에는 논리적인 ‘논설’이라기 보다는 정감에 호소하는 ‘연설’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1907년 8월 21일 『동포들 심각히야 보시오』와 1907년 8월 22일 『락심히지 말고 힘들 쓸 일』, 1908년 2월 9일 『너 몸이 곳 나라오 나라가 곳 너 몸』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글들은 지식인으로서 대중을 계몽하려는 목적을 드러낸다. 어휘 면에서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 이는 대중을 선동하는 연설문의 특징이라 하겠다.<sup>38)</sup>

정운복의 논설에서 보이는 문체적 특징 중 하나는 서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감성적인 연설문의 형태를 띠는 것과는 정반대로 대단히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서술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논설’에 적합한 문체라 하기는 어렵다. 보리짚 마련하는 법을 설명하는 데서 두드러져 보인다. 1908년 5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실은 논설 『보리짚(麥稈)의 리익』에서 “이에 보리짚 짜는 법과 밧 모즈 밧달

37)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정선태, 앞의 글, 59쪽 참고.

38)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리 이천만 동포가 혼 뜻으로 나라를 사랑하야 너 몸의 리히를 도라보지 안코 굿건히게 나아가면 우리의 뜻을 싸은 성은 텃하의 폭발약을 모다 한곳에 모화 쫓고 불을 지를지라도 문혀지지 안으리니 조금도 겁너거나 두려워 하지 말고” 1908년 2월 9일 논설 『너 몸이 곳 나라오 나라가 곳 너 몸』.

기 위하야 찻는 법을 좌에 그재하야 전국 동포가 모다 알게 하고져 하노니”라고 하여 7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 첫 번째 항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一. 보리집을 쓰게 하려면 우선 벼히 썩에 주의하야 항용 벼히는 썩보담 십일이나 혹 십삼일을 압셔 벼히지니 이는 조금 일즉 벼히면 광퉁이 고음을 위함시오 또 조금 일즉 벼히지라도 보리쌀은 조금도 관계치 안이홀 썩 안이라 그 쌀의 품질이 도로혀 도홀시오”

‘론설’이라는 항목에서 위와 같이 어떠한 물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모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보리짚을 마련하는 것이 개인의 소득이 될 뿐 아니라 나라 경제에도 큰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세히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 문제 역시 대한제국의 정치적 독립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러한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는 데서 사상적 한계를 보인다.

## 5. 맺음말

정운복은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지만 애국계몽기에 그가 행한 역할들을 그저 무시할 수도 없는 인물이다. 그는 한글 전용을 주장하면서 한글의 정착에 기여하였고, 교육과 풍속 개량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여러 사회단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였다.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제국신문』의 논설 집필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행적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정운복의 행적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사실들 외에 연설로 유명했던 그의 행적에 따라, 연설한 흔적들을 보완하였다.

그는 안창호와 함께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연설을 통해 계몽 운동을 벌였으며 대단한 호응을 받았음을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1907년에 그가 주필을 맡은 『제국신문』은 한글 전용을 통해 하층민과 여성 독자를 주요 독자로 확보하였다고 하였는데, 정운복의 논설 역시 그런 맥락을 계승하고 있다. 그의 논설은 정치에 관한 언급 못지 않게 풍속에 관련한 언급이 많다. 풍속 개량을 강조하고 특히 여성의 계몽에 주목한 것은 정운복 논설의 특징이라 하겠다. 그의 논설은 서구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와 다른 우리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의 담론인데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보인다.

정운복이 한글 전용을 주장했지만 그의 글에는 아직 한문 문투가 많이 남아 있다. ‘어차어피’ 등에서 한문 문투가 확인되며, ‘천견박식’처럼 관련 단어를 병치하여 4음절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한문 문투에 해당한다. 구성상에 있어서 문답법을 활용하는 것 역시 한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래적인 방법이다. 한문 문투가 전래적인 것이어서 아직 극복되지 못한 것이라면, 생경한 일본 한자어를 배격하는 모습은 자못 주목된다. 시대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의 친일적 성향에도 배치되는 이러한 문제 의식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문체 면에서 정운복의 논설은 감성적인 연설문의 성향을 띠는 것들이 많은데 이는 계몽적 태도에 따른 것이며 또한 그가 연설에 능했던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대단히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독자들이 실행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자 함이니 역시 계몽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부록) 정운복의 『제국신문』 논설 목록<sup>39)</sup>

1907년 6월-12월

날짜	논설	분류
6.8	(사설) 첫인사	신문
6.9	박직(雹災)	정치
6.11	공립신보로 모범을 삼을 일	신문
6.12	살기를 닦는 시덕	계몽
6.14	홀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 일	계몽
6.15	상품진열소를 보고 혼탄흠	풍속
6.16	부끄러히 벌어서 결용홀 일	계몽
6.18	진명부인회를 하례홀	여성
6.19	부인의 의복을 기량홀 일	여성
6.20	어린이학 그라치는 법도	교육
6.21	어린이학 그라치는 법도-속	교육
6.25	기독교교육총회를 하례홀	단체
6.26	희산 구원을 성수에 맞기지 못홀 일	여성
6.27	나라 흥망은 정부에 있지 안코 빅성의거 있음	계몽
6.28	경성상업회의소와 및 한성 니 상업가 제씨의게 경고홀	단체
6.29	증추원	정치
6.30	츄세를 도하홀은 나라를 망홀는 근인	풍속
7.4	단발에 덕홀 의견	풍속
7.5	풍설	계몽
7.6	근력에 처음 덧는 희소식	여성
7.10	만세보를 위하야 한번 통곡함.	신문
7.13	새벽 최북 한 소리	신문
7.23	전국 동포에게 경고홀	계몽
7.24	피란가는 자를 위하야 한탄홀	계몽
7.25	내가 계공은 홀로 그 칙망이 업슬가	정치
7.26	민심 수습홀기를 힘쓸 일	정치
7.27	신협약에 대한 의견	정치
7.28	락심하지 말 일	계몽
8.1	당파의 리허	단체
8.2	해산한 군인에게 고향	정치
8.10	단성사를 평론함	풍속

39) 대부분 필자명이 '탄해생'으로 나오므로 '정운복'으로 표기된 경우만 따로 표시함.

232 대중서사연구 제20권 1호

8.15	반딧허는 자를 뒤워허지 말 일	계몽
8.16	장사허는 사름은 공손함을 위주홀 일	계몽
8.17	봉독 성조 奉讀 聖詔	풍속
8.23	즈강 동우 량회의 희산을 익셔홀	단체
8.31	(별보) 박람회를 구경홀 일	계몽
9.10	붓을 들고 통곡함 淸운복	신문
9.19	법규와 풍속의 관계	풍속
10.3	본신문 속간허는 일	신문
10.4	(무제. "나보단 나흔 자를 슬허허는 마암"으로 시작)	계몽
10.5	신문과자	신문
10.6	너 정신은 너가 차릴 일	계몽
10.8	아편을 엄금홀 일	풍속
10.9	정치 기량보담 풍속 기량이 급함	풍속
10.10	풍속개량론 1) 녀자의 기가를 허할 일	풍속
10.11	2) 너외허는 폐습을 곳칠 일	풍속
10.12	3) 압제훈인의 폐풍을 곳칠 일	풍속
10.13	4) 압제훈인의 폐풍을 곳칠 일(전호 속)	풍속
10.15	5) 택일허는 폐풍을 버릴 일	풍속
10.16	6) 위생에 주의할 일	풍속
10.18	7) 상업계의 폐풍을 고칠 일	풍속
10.19	8) 온돌을 폐지할 일	풍속
10.20	9) 음식 먹는 습관을 고칠 일	풍속
10.22	청국지스의게 권고홀	정치
10.26	림피군으로 모범을 삼을 일	신문
11.6	경무 당국자의게 경고	정치
11.7	직판소 관리의게 경고	정치
11.8	밤에 전문을 닳치지 말 일	풍속
11.12	영웅호걸이 업습가	계몽
11.13	전국 청년에게 경고홀	교육
11.14	대한협회를 하례홀	단체
11.16	빅성의 맞음이 업스면 서지 못	정치
11.17	비를 무셔워허지 말 일	풍속
11.20	리천군슈 리철영(利川郡守 李喆榮)씨의게 경고홀	신문
11.21	리천군슈 리철영씨의게 두 번 경고홀	신문
11.23	한의(漢醫)와 양의(洋醫)를 의론홀	풍속
11.24	선비의 괴운이 쓸치지 못함을 한탄홀	계몽
11.26	귀부인사회에 경고홀	여성

11.27	정부 제공의 칙임을 못고쳐	정치
11.28	일본 당로자에게 질문함	정치
11.30	한인이 일본을 의심하는 원인	정치
12.1	한인이 일본을 의심하는 원인 (속)	정치
12.4	(신문 유실. 의병에게 권고함 -)	정치
12.5	의병에게 권고함 二	정치
12.7	의병에게 권고함 三	정치
12.8	의병에게 권고함 四	정치
12.10	엇지하면 살가	계몽
12.11	엇지하면 살가 (속)	계몽
12.12	엇지하면 살가 (속)	계몽
12.14	리지원(李致遠)씨의 부인의 신의를 감사	신문
12.15	합흔논것이 귀훈이라	계몽
12.18	거울을 달고 물건을 비초임	풍속
12.19	거울을 달고 물건을 비초임	풍속
12.22	공립신보(共立新報)와 대동공보(大同公報)를 위하야 하례함	신문
12.25	동업자의 필전을 훈탄함	신문
12.26	사회와 신문	신문
12.27	국민의 주신력이 업슴을 훈탄함	계몽

1908년 1월~1909년 2월

날짜	논설	분류
1.5	새해에 바라난 바	계몽
1.7	미주에 재류하는 동포에게 권고함	단체
1.8	서북 양 학회의 합동을 하례함	단체
1.10	(기사) 정부명령이 밋업지 안음을 훈탄함	정치
1.11	(신문 유실. 위 기사 속편)	정치
1.12	던기회사의 불법행동을 통문함	기타
1.14	노름군의 큰 외주	풍속
1.15	던기회사의 무상함을 다시 의문함	기타
1.26	(별보) 괴호흥학회를 하례함	단체
2.7	식회에 신슈점치는 악풍	풍속
2.8	정부 당로자에게 경고함	정치
2.9	내 몸이 곳 나라오 나라가 곳 내 몸	계몽
2.12	안성군슈 광찬은 엇던 자이노	신문
2.13	청년의게 비단옷을 낚히지 말 일	풍속

2.18	직성형년의 악풍	풍속
2.22	상등사회에 경고훈	교육
3.10	(별보)평양유기(平壤遊記)1 - 정운복	기타
3.12	평양유기 2	기타
3.13	평양유기 3	기타
3.14	평양유기 4	기타
3.15	평양유기 5	기타
3.17	평양유기 6	기타
3.18	평양유기 7	기타
3.20	일흠 업는 영웅	계몽
3.25	삼림법(森林法)에 디허야 동포의 경성을 직촉흠	정치
4.3	산림법에 디허야 동포의 경성을 직촉흠	정치
4.17	번역의 어려움	교육
4.19	신 나라 조직의 풍설	정치
4.23	서북학회의 학교 건축하는 일-정운복	단체
4.24	공론	정치
4.25	언론의 주유를 허흠 일	신문
4.26	민영휘씨의게 권고흠	정치
4.28	너 나라 것을 소중히 아는 것이 가흠	교육
5.3	다시 언론의 주유를 의론흠	신문
5.6	지방 유림의게 경고흠	교육
5.7	경성상업회의소의 흥왕치 못흠을 한탄흠	단체
5.10	법관 선택에 디허야 바라는 바	정치
5.14	소설(小說)과 풍속의 관계	풍속
5.15	소설(小說)과 풍속의 관계(속)	풍속
5.16	영선군 합하의게 경고흠	정치
5.17	주녀를 학교에 보너지 안는 자는 국가의 죄인이 됨	교육
5.21	춘몽(春夢)	풍속
5.22	도적이라 흠은 무엇을 가라침이뇨	풍속
5.23	도적이라 흠은 무엇을 가라침이뇨(속)	풍속
5.24	학도에게 월사금을 맞을 일	교육
5.26	관찰스 회의에 디허야 바라는 바	정치
5.28	보리집(麥稗)의 리익	풍속
5.29	보리집(麥稗)의 리익	풍속
5.30	영선군 합하의게 통곡허야 고흠	정치
6.2	영선군 합하의게 통곡허야 고흠(속)	정치
6.5	너즈의 의복과 단장을 급히 기량흠 일	여성
6.7	국문과 한문의 경중	교육
6.9	국문과 한문의 경중(속)	교육

6.10	국문과 한문의 경중(속)	교육
6.13	비를 기다림	계몽
6.16	점찍방지진(鮎貝房之進)은 엇던 자이노	교육
6.17	점찍방지진(鮎貝房之進)은 엇던 자이노(속)	교육
6.18	점찍방지진(鮎貝房之進)은 엇던 자이노(속)	교육
6.19	정계의 현상을 탄식함(歎政界現狀)	정치
6.20	너즈의 기가는 턴리의 췌엿흠	여성
6.21	교육과 실업을 아울러 힘쓸 일	교육
7.2	(사설) 인독 첨근주의게 사레흠	신문
7.3	교육월보(教育月報)를 하레흠	교육
7.4	연회의 폐풍	풍속
7.5	인지 등용의 어려움(人材登用難)	정치
7.7	습관의 선악	풍속
7.8	습관의 선악(속)	풍속
7.9	시정개선과 인재	정치
7.14	한문을 숭상흠은 의뢰심을 양성흠과 갖흠	교육
7.17	공인(公人)과 스인(私人)의 구별	정치
7.18	직권을 람용흐는 폐히	정치
7.22	무능흔 관리는 도퇴흠이 가흠	정치
7.23	인심을 진정케 홀 일	정치
8.2	직판소 기청을 하레흠	정치
8.8	본보의 창간 십주년	신문
8.12	직물을 저축홀 일	풍속
8.13	직물을 저축홀 일속	풍속
8.14	직물을 저축홀 일속	풍속
8.18	부치 세 자로	풍속
8.20	부치 세 자로속	풍속
8.30	역둔토 관리 규명의 디홀 의견	정치
9.5	내부관리의 관탕 폐지	풍속
9.18	총리대신의 량착	정치
9.26	민소쇼송에 주의홀 스항	정치
10.1	(별보) 단발에 디한 공론	풍속
10.14	변소 개량에 디하야 워싱 당국자의게 경고흠	풍속
10.15	직답 국민괴자	풍속
10.18	연강 각 학교의 련합운동회를 하레흠	교육
10.24	병중에 췌다름이 잇슴	정치
12.17	병중소감(病中所感)	정치
1.8	털도른	정치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제국신문』 연세대학교 소장본.  
『대한자강회월보』 1호~7호, 아세아문화사, 1976 영인.  
『대한자강회월보 편역집1』,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학센터, 소명출판, 2012.  
『대한협회회보』 1호~12호, 아세아문화사, 1976 영인.  
『한국근대사인명록』, 여강출판사, 1987 영인: 원제 '조선신사보감(朝鮮紳士寶鑑)', 다  
나카 쇼우코(田中正剛) 편집, 조선문우회(朝鮮文友會), 1913년 제3판.

### 2. 논문 및 단행본

- 김양원, 「구한말 제국신문에 나타난 교육사상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김종욱, 「한말 여성계몽운동에 대한 일연구-『제국신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2009.  
박경수, 「정인택 문학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1.2.  
박노자, 「개화기 신문도 '춘지'를 먹었다」, 『한겨레21』, 한겨레신문사, 2005.4.22.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설성경·김현양, 「19세기말~20세기초 <帝國新聞>의 <론설> 연구」, 『연민학지』 8, 연민학회, 2000, 223~253쪽.  
신용하, 『신판 독립협회 연구(상)』, 일조각, 2006.  
심옥주, 「도산 안창호의 정치활동의 성격과 의미 : 공립협회와 신민회 활동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민족사상』 6(1), 한국민족사상학회, 2012.4, 135~172쪽.  
유영열, 「대한자강회 애국계몽운동」,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3.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 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67~98쪽.  
이경현, 「『제국신문』 초기 논설에 나타난 '학문'의 성격과 '동양' 사유방식」, 『한중인문학연구』 14, 한중인문학회, 2005, 65~90쪽.  
이윤희, 「도산 안창호의 독립운동사상에 관한 고찰」, 『한국사상사학』 18, 한국사상사학회, 2002, 531~562쪽.  
이현중, 「대한협회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39,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0.

15~56쪽.

- 이현중, 『대한협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성격』,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3.
- 정선태, 『근대계몽기의 번역론과 번역의 사상』,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 조용만, 『李箱時代, 젊은 예술가들의 肖像』, 『문학사상』 174~176호, 문학사상사, 1987.
- 최기영, 『대한제국기 신문연구』, 일조각, 1991.
- 한기형, 『근대어의 형성과 매체의 언어전략』, 『문예공론장의 형성과 동아시아』, 성균관대 출판부, 2008.
- 한원미, 『『獨習 日語正則』의 한일 대역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3.
-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 Abstract

A study on Jung Oonbok's editorials of *Jegooksinmun* 帝國新聞

Lee, Dae-Hyong(Dongguk University)

Jung Oonbok 鄭雲復 was a Japanese collaborator in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But we must not discount his acting for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He insisted exclusive use of Hangeul, and made efforts for patriotic enlightenment through public speech and newspaper editorials.

We pay attention to his editorials about custom improvement and women enlightenment. It is different from other intellectuals' direction in those days. His insisting is based on the discourse that Western culture is good.

He insisted exclusive use of Hangeul but his writings have traditional Chinese style. In the writing style his newspaper editorials mainly have sensitive tendency of speech. Such a phenomenon was from his enlightening attitude and an agitative speech. On the other hand he wrote newspaper editorials very concretely. Because he wanted his writing would be used as guide for readers about concrete matters, It is also involved in enlightening attitude.

(key words : patriotic enlightenment, speech, custom, women, writing style.)

투고일 : 2014년 2월 28일 투고  
심사일 : 2014년 3월 5-28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4년 4월 2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4년 4월 11일 게재확정